

성삼 후 21주일(연중 30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 240장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8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9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 거룩하신 하느님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같  
이 사랑하게 하소서.

1독서 ..... 레위 19:1-2, 15-18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1편 ..... 다 함 께



-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으며  
○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사-람
- 2 주께서 주신 법을 닦으리 삼아  
○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니  
○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맺으리
-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 5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니,  
○ 의인의 길은 주께서 |보살피신다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킴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 1데살 2:1-8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마태 22:34-46 ..... 말 은 이

설교 .....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 16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19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504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0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22쪽(C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5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6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365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29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29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363장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29일)	다음 주일(11월 5일)
1독서	이숙영	최서은
2독서	홍종분	최자연
대 도	권순호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묵시 7:9-17   시편 34 1요한 3:1-3   마태 5:1-12	
성 가	269   654   338   597	
복 사	허재원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3조> 권순호    황선숙    김운권    홍양금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0월 29일 성삼 후 21주일(연중 30주일) · 가해 · 녹색

제27-44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 시작되는 사랑의 송가에서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 읽으며 묵상하면 우리 신  
앙의 현실 수준이 드러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아  
선택하는 좋고 싫음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께서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여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의 차원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본래 바울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느님의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던 바리사이였습니다. 바울로의 회심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쳐 실패한 탓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강요되어 겉으로 지키  
는 율법은 외면적인 행위는 통제할지 몰라도, 내면의  
동기를 변화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율법자체의 결함이나 인간의지의 나약  
함 때문은 아닙니다. 율법이 애당초 서로 사랑하기  
위한 약속임을 잊고, 인간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대상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현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강조하는 율법준수는 자칫 하느님조차도  
대상화합니다. 이웃의 존재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상화합니다.

바울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을 만나며 율법의 참된 의미와 사랑의 본질에 눈뜹  
니다. 사랑은 타자를 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타자  
앞에 ‘나’를 상대로서 세우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이  
웃은 “율법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  
께할 상대”입니다. 사랑은 상대와 올바른 관계를 맺  
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  
에서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좁은 자아를 포기할 때,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참된 본성이 드러납니  
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  
명은 이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  
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 그  
리고 서로의 관계에 정직하고 지혜로우라는 요청입니  
다. 하느님 안에서 나와 너가 깊이 만나는 차원이 참  
사랑이요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  
을 완성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All Saints' Day)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초대 교회 이래로 성인들을 기념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 증거자, 주교와 성직자, 동정녀, 교회학자, 수도자와 선교사 등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을 성인으로 공경하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순교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거나, 남모르게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산 이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성인들, 곧 “하느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익명의 성인들에 대한

공경도 마땅한 일이므로 4세기 안티오키아에서는 성령강림 후 첫 번째 주일에 “모든 성인의 날”이 기념되었습니다. 609년, 교황 보니파스 4세는 고대 로마의 만신전(萬神殿)을 축성하여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에게 봉헌하며 5월 3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8세기에는 영국에서 추수기인 11월 1일에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11월 2일은 ‘모든 별세자의 날’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은 매우 기쁜 축제일로서 서양의 대부분 그리스도교 국가가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낼 정도이고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 어린이 축제인 10월 31일 ‘할로윈’(Halloween)이 바로 이 날의 전야제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이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것이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이요 할로윈 축제의 목적입니다. 지난 해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축제 도중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축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이 별세한 이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깊이 위로할 일입니다.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더해도 그칠 수 없는 사랑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11월 19일(주일)**

**모든 교우의 날 · 추수감사주일**

### \* 모든 교우의 날 (교회축성기념일, 교회설립기념)

1997년 9월 21일, 정기적인 전례가 시작한 날을 산본교회 설립일로 삼아 이제 26주년을 기념합니다. 더불어 2012년 11월 18일은 이곳 성전을 축성한 날로 기억하며 11주년을 기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교우들의 마주치는 눈에서 기쁨이 되고, 잇닿은 가슴에서 사랑이 되며, 맞잡은 손에서 친교와 봉사의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지와 벗들 모두 초대하여 기쁘게 모입니다.

###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루와 한해와 일생의 삶이 모두 “눈물로 씨 뿌리고, 힘써 일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과정입니다. 목적을 깨닫고 도전하며, 과정을 성실히 인내하고, 결실을 감사하며 나누는 일이 신앙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봉헌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립니다.

## 교회소식

### ■ 전례와 사목

#### ◆ 모든 교우의 날(교회축성기념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회설립 26주년, 교회축성 11주년을 기념합니다.

뜻 깊은 날 주교님이 순방하여 견진성사를 베풁니다.

### ■ 알림

#### ◆ 성령 세미나 안내 (성전 입구에 신청서 비치)

11월 4일(토)부터 안양교회에서 7주간 진행됩니다.

시간 : 오후 3시~5시 / 회비 : 20,000원(교재포함)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11월 교회위원회

다음 주일(5일) 오후 1시 30분 / 어린이 예배실

#### ◆ 성서 퀴즈대회 (범위 : 마태오복음 1~12장까지)

오늘(29일) 11시 성찬례 후에 열립니다.

#### ◆ 세례성사 교육 안내 (세례성사 - 12월 24일)

11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 예비자 - 김훈나

#### ◆ 견진성사 교육 안내 (견진성사 - 11월 19일)

11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 예비자 - 채희영

11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 고미순 이도연

#### ◆ 수요 성서공부

금주 수요일(1일)은 성직자 피정 관계로 쉽니다.

#### ◆ 남부교무구 성직자 연피정

10월 31일(화)~11월 3일(금) / 제천 배론 성지

#### ◆ 남부교무구 서부권역 세 교회 임원단 모임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 / 안양교회

#### ◆ 세실대학 졸업생 후속 교육

11월 4일(토) 오후 2시~5시 / 대성당 프란시스홀

#### ◆ 남부교무구 어머니 월례모임

11월 9일(목) 오전 11시 / 안양교회

### ■ 교우 소식

####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소라(29일) 정연창(1일)

이진봉, 이윤상(2일) 김길자(4일)

##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월정헌금** 2,200,000원  
김은하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백남진/박선희 이상헌/최미혜 이윤식 조준행 채희발 최용옥/윤희진 최용준/백기은

■ **주일헌금** 203,000원  
김승현 김운권 류한신 백옥경 이윤식 이은경 임혜지 장성환 조준행 최순덕 한명숙

■ **주일학교** 2,000원  
유아윤 유아현

■ **감사헌금** 460,000원  
기필순(생일) 안병순/김홍제(심방) 지영주 차준섭/김승숙 허예영(추모) 허훈제

### 〈온라인 미사 봉헌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 주간 전례독서(10월 30일 ~ 11월 4일 / 연중 30주간)

	독서	복음
30일(월)	로마 8:12-17	루가 13:10-17
31일(화)	로마 8:18-25	루가 13:18-21
1일(수)	로마 8:26-30	루가 13:22-30
2일(목)	로마 5:5-11	요한 5:19-25
3일(금)	로마 9:1-5	루가 14:1-6
4일(토)	로마 11:1-2, 11-12, 25-29	루가 14:1, 7-11

### ※ 기도해 주세요 ※

#### ◆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전도

70명이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 이요한 김훈나